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연극/뮤지컬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연극/뮤지컬 분야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25년 1월 13일(월) 14:00~16:30
(2차) 2025년 2월 7일(금) 14:00~16: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건표, 남윤일, 우연, 정안나, 황진수

2025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기획·창작·발표 지원 및 예술가 간 협업 촉진을 통해 창작 역량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34세 이하 청년예술가(개인, 팀)로 신청자격을 조정했으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예술작품 발표 이력을 가진 청년예술가를 지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업 설계부터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면서도 폭넓은 청년도약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2025년 연극/뮤지컬 분야 지원신청 건수는 개인과 팀 유형 전체 256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 결격 6건을 제외한 총 250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올해 변화된 사업의 특징과 지원규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5인의 심의위원은 3주간 제출서류를 전수 검토하며 1차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 토의를 통해 지원신청사업 61건을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심의에서는 '작품 기대성(50%)'과 '사업계획의 충실성(50%)'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작품 방향의 발전적 가능성 창작진 구성, 공연장 규모의 적합성, 예산계획의 효율성, 무대화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작품 특성에 맞는 창작진 구성과 그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된 계획에 대해 발전적인 창작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작품 계획이 무대 구조 또는 공간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1, 2차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청년예술가들이 동시대에서 고민하는 소재는 대체로 AI와 휴먼, 기후위기,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의 삶, 사회재난, 가족, 정치사회 및 퀴어·젠더·소수자 문제 등이었고, 형식적으로는 관객 참여를 탈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이머시브 형식 및 기존 드라마의 구조성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양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희곡과 연출의 방향성보다는 창작자로서 도약하는 과정적인 면에서 기존의 극 형식을 탈피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인 경향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아이디어와 소재는 참신하지만 무대화 계획이 충분히 설득되지 못한 경우는 발

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양한 역할과 작업을 경험하며 창작자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는 단계에서 기존 연극의 형식을 재현하려는 계획은 비교적 차별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청년예술가만의 독창성으로 보여주는 무대 위 거침없는 표현과 형식 중에는 실험적이거나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연극/뮤지컬이 갖는 기본적인 구조적 질서가 부재한 것으로 느껴지는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청년예술가로서 창작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한국연극의 흐름과 방향 속에서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1, 2차 심의를 거쳐 연극/뮤지컬 분야 553백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예술가도약 취지에 적합한 사업 19건(개인 14건, 팀 5건)을 지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금액은 지원신청액 규모를 가급적 유지하고 금액 조정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심의위원들은 개인/팀, 세부 장르 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밝히며, 앞서 서술한 심의위원회 공통 의견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이 참신하고 발전적인 청년예술가들에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성장 가능한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작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더욱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